

# 화재신고의 선구자



金正萬  
(서울대공원진료과장)

**우리** 나라 풍습에 정월 초하룻날 까치가 아침에 일찍 앞마당에 날아와 까악! 까악! 짖어 대면 그 해는 운수대통하고 만사형통한다는 믿음으로 대우를 받으며 살아오는 새가 까치이다.

그렇기때문에 까치는 1964년 10월 10일 국조선정위원회의 발족과 동시 전국의 조류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의를 거친 우리나라 14새로 선정되었다.

까치는 우리나라의 텃새로 유럽, 북미, 한국, 중국, 몽고, 시베리아, 일본등지에 분포서식한다.

암수 빛은 같으며 날개의 길이는 18~22cm, 꼬리는 19~26cm이고 무게는 1.9~2.8kg까지 나간다.

농가나 시가지근처의 큰나무나 전주등에 타원형의 둥우리를 만들고 사발모양의 진흙을 섞어 알자리에는 마른 풀, 헛겜질, 종이, 짐승 및 자기 앞가슴의 고운 털을 뽑아 깔아 놓은 후 3~5월 사이에 5~6개의 알을 낳아 암수 교대로 17~18일간 포란 후 깨고나면 암수공통의 책임아래 먹이를 물어다가 의종계 기르는 것이 까치의 특징이

기도 하다.

까치는 일반조류들과는 달리 귀소성이 강한 새로서 천재지변, 도시계획, 인공포획 내지 사냥총으로 멸종을 시키지 않는 한 절대로 자기의 동지를 버리지 않을 만큼 향수심이 강하며 자기가 알을 낳고 자란 보금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새중의 하나로 꼽혀진다.

특히 식성은 까다롭지 않고 아무것이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면 가리지 않고 먹은 후 소화를 잘시키는 잡식성의 새이다.

까치는 선천적으로 사람과 가까운 시야에서 지내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축아닌 야조이지만 사람에게 해로운 병을 옮기는 전염원이기 보다는 익조로서 들쥐, 곤충, 벌레등을 잡아먹고 살며 단지 가을철 수확기에 각종 열매에 약간의 피해를 줄 정도밖에는 없다.

까치소리에는 옛부터 재미난 얘기들이 얽혀 있다.

이른 아침부터 까치가 집앞마당에 날아와 울어대면 시집보낸 딸이 어떻게 잘 살아가는지 하고 애타게 기다리

던 친정어머니를 찾아뵈려고나 잘 살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라도 받게된다고 한다. 말하자면 까치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전달자로서 길조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까치가 때를 가리지 않고 릴레이식으로 계속해서 장시간 시끄럽게 전달식 대화로 울어대면 그동네에는 각종 사고를 포함한 불길하고 슬픈 소식이 전해진다고 한다. 우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킨 다음 좋지 않은 소식을 알려줌으로써 명쾌한 해결책을 강구토록 지시해주는 해결사의 역할까지 하는 셈이다. 따라서 마을 근처에 까치가 공생하지 않으면 그 마을은 인심이 사납고 동물의 애호심이 없거나 동물을 박해 또는 학대하는 고장으로 손꼽히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아침이던 대낮에 인가근처에서 까치떼가 까악! 까악! 소리지르지 않고 하늘높지도 않게 저공비행을 할 사이없이 하고 있으면 마을에 경사나 잔치, 회갑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 준다고 한다. 손님들이 먹다버린 먹을 것을 배불리 먹어가면서 고맙다는 표현으로 경사난 집 찾아오는 길손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영특하고 보답할 줄 아는 새이기도 하다.

또 아침 저녁 때없이 민가의 앞마당에 공중폭격기처럼 내려 꽂히며 총쏘는 소리처럼 긴박하게 울어대면 새로운 생명이 해산관이나 조산원의 도움없이 진통중이거나 난산중에 있다는 것을 이웃집 할머니에게 알려주는 것이며 석양노을이 칠무렵 마을뒷산을 기점으로 길고도 슬픈 소리를 내면서 마을주위를 배회하면 눈에 익고 정들었던 마을사람이 고향을 등지고 떠난다는 이별의 하소연을 온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시위라고 한다. 이처럼 까치는 영물같은 정이 깊을 뿐 아니라 농번기나 수확기에 벌레나 곤충, 해충이 만연되어 피해가 많을 것으로 감지하면 하루종일 눈코 뜰 사이도 없이 논밭속을 쉬지않고 들락 날락하며 필사적으로 벌레와 해충의 소탕작전을 벌임으로써 부족한 농촌의 일손을 덜어주고 풍년을 기약하게 해주는 이로운 새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까치가 5천년의 역사속에 백의민족과 함께 살아오면서 화재진압에 있어 선구자 역할을 유감없이 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을 뒷산의 고목에 둥지를 틀고 높이 올라앉아 혹시

해질무렵 추녀끝에 불이라도 붙어 불꽃과 연기가 천지를 진동하게되면 야간소방관인 까치떼는 어김없이 비명의 사이렌 소리를 울려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한다. 야간소방관인 까치의 화재경보소리에 놀라 다행히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경우도 있으나 게으르고 무심하거나 까치를 경멸하는 농부들은 집이 다 타들어갈때까지 깊은 잠에 빠져 온가족이 함께 피해를 입은 사례도 외딴 시골에서는 가끔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시골에서는 마을의 영물인 까치의 울음소리나 행동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다. 시골노인들이 마치 점술가처럼 어떤 일을 예견하는 것도 까치의 행동과 울음소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여러가지 일화가 오늘날까지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음도 전혀 우연한 일은 아닌 것이다.

민가의 뒷산 높은 나무가지에 둥우리를 틀고 매일같이 밤이 되면 자기 둥우리로 찾아와 잠을 자고 불침번을 서주며 사람들과 서로 의지하고 분담해가며 공생한다는 것은 자연의 섭리로 볼 수 있다. 까치는 사람의 주거지 화재를 미연에 방지해주는 한편으로 사람의 손에 의해 먹이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 영특한 머리의 소유자인 것이다.

오늘날 도시 한가운데에 높은 탑식의 전망대를 만들어 놓고 소방관들이 마치 까치가 높은 나무가지에 올라앉아 주야간 동네를 살펴보듯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화재발생 지역을 신고에 앞서 발견, 사이렌을 울리며 소방차를 출동케하여 화재진압은 물론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고 보호하는등 민첩성을 보이는것도 실은 까치떼들이 무지한 인간들에게 무언의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준 삶의 행동철학에서 뒤늦게 배우고 터득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 인간들이 까치들로부터 무언의 산 지식을 빨리 터득치 못하였다면 재산과 인명피해는 더 컸을 것이다.

우리 인간들은 항상 미물짐승, 하등동물이라고 멸시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의 행동, 습성, 번식, 투쟁의 묘미등을 항상 배우며 관찰한 후 인간생활에 유익한 점이 있다면 스승으로 생각하고 과감한 실천과 행동으로 이를 옮겨야만 보다 나은 인류의 내일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